

수출 쇼

정범진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원 자력계에서 수출은 오랜 꿈이었다. 1992년 원자력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 사업이 처음 주도되었을 때 이미 수출이 언급된다. 그 이후 대부분의 원자력 문서에는 수출이 언급된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수출'을 모든 분야에서 국시로 삼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출이란 꿈이 실린 것인지 아니면 진정코 수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출에도 Top-down과 Bottom-up 방식의 접근 방법이 있다. Top-down은 정치인, 고위 관료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Bottom-up은 산업계, 연구계의 실무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Top-down 방식의 장점은 신속한 의사 결정과 홍보 효과이다. 단점은 집행의 과정에서 오래 실무적인 난관에 봉착한다는 점이다. 특히 원자력과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상대 국가의 정치와 행정 체제의 조직화 정도, 그리고 청렴도 수준도 많은 영향을 준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와의 협상에서는 늘 긍정적인 답이 기대된다. 이들은 원래 부정적인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희망을 품는 것은 바보다.

때로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외부의 지원군을 얻기 위한 성격으로 수출 협상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것은 진정한 수출 쇼다. 최근 제4세대 원전 등도 어느 정도 자국의 관료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인 쇼의 성격이 있는 듯하다.

나쁘게 바라본다면 일단 과제화가 되면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가 가능해진다. 국제 협약으로 묶여 있으니까 말이다. 또 향후 얼마간은 실질적인 연구보다는 뭘 할지, 계약은 어떻게 할지,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할지 등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국제 회의에 분주히 오가게 될 것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책임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된 감동을 느낄런지도 모른다.

수출은 왜 해야 할까? 외국 돈을 벌어드는 것

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수출 대상국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10년 혹은 그 이상을 투자를 하고 인맥을 키워야 한다.
수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수집도 되어야 한다.
또 상호 이익을 조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국제 사회에도 출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수출 대상국의 행정 시스템, 원자력 관련 기관의 구체적 역할과 Cash flow,
인력의 구조, 전력 산업의 판도 등에 대한 면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은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다. 그것보다 절박한 이유도 있다. 국내 원전 시장은 조만간 포화될 것이다. 경제 수준과 소비 수준이 향상될 것이지만 공장은 이전되고 있다.

선진국 원자력산업의 내리막 경험을 시차를 두고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간 품고 싹틔운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원자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타 분야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 후배도 한번 받아보고 살기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다.

Bottom-up의 수출 방식은 우리 원자력계의 실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SCI 저널이 아니라 잡지에 우리 원자력이 소개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은 용역이라도 받아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달고 전문가가 파견되어 일을 같이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 부문의 FTA 협상에서 원자력 부문의 용역 시장 개방을

유보하면서도는 어려울 것 같다.

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수출 대상국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10년 혹은 그 이상을 투자를 하고 인맥을 키워야 한다. 수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수집도 되어야 한다. 또 상호 이익을 조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국제 사회에도 출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상급 기관의 눈치만 볼 필요도 없다. 전력 산업이 민영화되고 발전 회사와 용역 회사가 대등한 위치가 되어도 용역 회사는 발전 회사를 떠나서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면 독립적인 회사가 아니다. 수출 정책도 각각 나름대로 수립해서 종합해야지 한 회사의 입장만이 반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

수출 대상국의 행정 시스템, 원자력 관련 기관의 구체적 역할과 Cash flow, 인력의 구조, 전력 산업의 판도 등에 대한 면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준비 없이 출장에 나선 듯 하다. ☹